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통합 난항

조합내 PE관 업체 독자행보 모색

우리나라 플라스틱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관련 단체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하 한프조합)과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로 양분돼 있어 전체 플라스틱업계의 결속력이 약화돼 정부의 보호, 지원육성책인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 제외의 위기가 도래되고 있는 등 수요 창출감소로 업계가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 단체는 플라스틱업계의 발전과 기술력향상을 위해 합병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에 나섰다. 이에 지난 2002년 9월 12일 이사회를 갖고 (가칭)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프연합회)로의 합병을 결의하고 지난 2002년 10월 8일 연합회에 합병 추진 업무 협조요청을 했다. 이에 연합회는 지난 2002년 10월 8일과 2002년 11월 22일 임시총회를 갖고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합병 추진의사를 타진하고 업무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 단체의 통합 배경에는 합병연합회에 4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할 것을 중소기업청이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조건부 통합을 의미하고 있다.

단, 지난 2002년 11월 7일 양 단체간의 분쟁해결 불가시 분쟁물품인 PE관 등 4개 물품을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제외할 것임을 통보했다.

양 단체는 지난 해 12월 18일 2003년 3월 말까지 연합회 및 조합이 통합을 통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물품제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2년 12월 24일 양 조합 물품(PE관, PE제품, PE필름, FRP제품)을 2003년 3월 말까지 통합하여 배정받을 것을 통보했다.

2003년 2월 5일 합병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을 시작으로 한프 조합은 2003년 2월 20일, 연합회는 2월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합병설립위원 7인을 각각 선임했다. 설립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1차, 3월 20일 2차, 4월 16일 3차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합병 추진이 지연되자 지난 2003년 3월 21일 물품지정을 4월 30일까지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서를 제출해 연기조치 및 기한내 통합 진행을 재촉구 했다.

4월 19일에는 중소기업청에 조합·연합회 명의 합병협의 신청서를 제출해 합병협의 완료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가칭)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제출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협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합병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돼 동법 제64조3항에 의한 합병협의를 이견이 없음을 통보한다. 이에 동법 제66조제1항에 의한 합병조합의 합병등기시에는 제63조제1항2호에 따른 기존조합의 해산등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양 단체에 전달됐다.

4월 30일 합병연합회 등기 신청이 만료돼 모든 합병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프 조합은 통합을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부 임직원의 합병결의 반대 입장이 제기되고 한프 조합 산하 최대 업종인 PE관 업체들이 통합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따른 것이다. 문제 사유는 만약 연합회로 통합이 되면 단체수의계약 배정권이 각 지방조합으로 분산돼 PE업체들이 불이익을 얻게 된다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PE관 업체가 한프 조합원사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조합은 이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PE관 업체인 대경프라스틱 손정운 대표 외 42인이 한프 조합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합병 승인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접수한 상태이다. 또한 PE관 업체는 지난 5월 15일에는 서울 소피텔엠버서더호텔에서 한국PE관협동조합 발기식을 개최한 바 있다.

현재 PE관 업체는 현 한프조합에 존속해 물품 지정을 요망하며 만약 존속이 안되고 합병이 추진될 경우 수요 창출을 위해 단일업종의 전국조합을 예정대로 신설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한프 조합은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과 이를 재검토 해 필요시에는 합병을 무효화 하자는 두 가지 입장으로 양분 돼 내부 분열이 초래되었다.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합의 신진문 이사장은 ?한프 조합 입장에서는 물품을 지정받아 회원사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며, 플라스틱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합회 체제로의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프 조합은 지난 5월 13일 정광호 선임 이사의 권한으로 임시총회를 소집,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임시총회는 조합 회원사 455개 중 PE관 업체 대표 2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의 재검토 문제를 상정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본인 참석에 의한 찬성이 142명, 서면찬성 78명, 기권 7명, 반대 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5월 말까지 연합회와 합의점을 찾는데 결론을 내리고 계속 지연될 시 조건부 합병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병재검토위원회를 7인 재구성해 한프 조합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점차적으로 합의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에서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미 인가가 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양 단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프연합회 체제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프조합과 연합회가 새로운 한프연합회 체제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지, 아니면 기존 체제로 운영이 될지 양 단체의 행보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